

시리아 실권자 “모든 종파 포용하고 국가가 무기 통제”

종파주의 척결 의지... “새로운 시대 열렸다” 선언

내전 참여 무장조직들 해체 후 정규군 편입 계획

시리아 과도정부를 이끄는 반군 하야트타흐리르알샤મ(HTS) 수장 아메드 알사라(옛 가명 아부 무함마드 알졸라니)가 모든 종파를 포용하고 무기를 국가의 통제하에 두겠다고 밝혔다.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알사라는 22일(현지시간) 다마스쿠스를 방문한 레바논의 드루즈파 지도자 왈리드 줘발라트를 만나 “시리아에서 어떤 종파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종파주의와 거리가 먼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와 종교, 이슬람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종교와 종파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시리아 분파인 드루즈파는 레바논과 시리아, 이스라엘 등에 퍼진 이슬람 소수 종파다.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단체 알카에다 연계 조직인 알누스라 전선을 전신으로 하는 HTS가 시리아의 실권을 장악하면서 일각에서는 HTS가 엄격한 수니파 이슬람 율법 통치를 강요하는 것이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알사라는 모든 종파를 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리아는 모두를 위한 국가이며 우리는 공존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시리아는 1970년대 레바논에 내전이 발발하자 군대를 파병해 개입했다. 레바논에서 시리아군은 2005년이 돼서야 철수했다.

알사라는 줘발라트를 만난 자리에서 시리아가 레바논에서 “공포와 불안의 원천”이 돼 왔다는 점을 인정하며 “레바논에 대해 부정적인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8일 아사드 정권 축출 이후 반군 시절의 군복 대신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연일 외국 사절 등을 맞으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알사라는 시리아의 무장 단체들이 해체되고, 모든 무기는 국가가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하칸 피단 외무장관 튀르키예 외무장관과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시리아의 무장 세력들이 “해체를 선언하고 군으로 편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쿠르드족 민병대 시리아 민주군(SDF)을 언급하며 “혁명 세력이든 시리아 민주군 세력이든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무기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단 장관은 시리아에 대한 제재가 최대한 빨리 해제돼야 한다”라며 국제사회에 “시리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실용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모아라”고 말했다.

튀르키예는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단체 쿠르드노동자당(PKK)을 견제하기 위해 그간 일부 반군 세력을 지원해왔고 지난 14일에는 가장 먼저 주시리아 대사관 운영을 재개하는 등 영향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 대전차 미사일 발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군인이 9M113 콘쿠르스 와이어 유도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동영상은 2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2기 ‘인도계’ 전성시대...FBI 국장부터 DOGE 수장까지

미 소수계 중 최다 발탁

오는 1월 20일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엘리트들의 약진이 두드러져 눈길을 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인도계 흑인으로 미국 내 인도계의 부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데 이어, 공화당이 집권하는 새 정부에서도 인도계 인사들이 대거 발탁되면서 미국 주류사회에 깊숙이 진입한 인도계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NBC 뉴스는 22일(현지시간) “인도계 미국인 공화당 스타들이 새롭게 탄생한 한 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런 흐름을 소개하며 그 배경을 분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장 요직에 등용된 인물로는 차기 연방수사국(FBI) 국장으로 지명된

캐시 파텔(44)이 꼽힌다.

인도계 이민자 2세인 파텔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공판검사와 연방 하원 정보위원회 선임 고문 등을 거쳐 트럼프 1기 때 국가정보국 부국장,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테러 선임 국장 등 안보 분야 요직을 맡았던 인물이다.

FBI는 테러와 사이버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부패, 민권 침해 등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미국의 최고 수사기관으로, 그 칼자루를 쥔 FBI 국장의 권한은 상당하다.

이런 요직에 백인이 아닌 인도계가 발탁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파텔이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의 굳건한 신임을 얻은 ‘총성파’이기에 가능했던 일로 여겨진다.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 중 또 다른 인도계 인사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비백

라마스와미(39)가 있다.

역시 인도계 이민자 2세인 라마스와미는 바이오 테크 회사를 창업한 기업가로, 공화당 대통령 경선에 나와 주목받은 뒤 탈락하자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우며 측근으로 부상했다.

이들 외에도 차기 법무부 시민권 담당 차관보로 지명된 하르밋 딜런(55) 변호사와 국립보건원(NIH) 원장으로 지명된 제이 바타차리아 스탠퍼드대 교수(56)도 인도계다. 두 사람은 모두 인도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들이다.

아울러 이미 많이 알려진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의 부인 우사 밴스도 인도계다.

인도계는 미국 인구의 2% 미만을 차지하고 전체 아시아계 중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가장 강한 집단이지만, 그동안 인도계 내에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 유권자의 비중도 꾸준히 늘어왔다고 NBC는 전했다. /연합뉴스

뉴욕타임스, 풍자·해학 담긴 한국 시위 조명

‘패러디 깃발’ 집중 분석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시위에서 등장한 유머 넘치는 ‘패러디 깃발’들을 집중 조명했다.

NYT는 22일(현지시간) ‘밈과 농담과 고양이...정치 시위에 패러디를 활용하는 한국인들’이라는 온라인 기사를 통해 이번 시위에서 나타난 풍자와 해학을 분석했다.

NYT는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거리로 나선 한국인 중 일부는 농담과 풍자를 통해 분노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냈다”며 “그들은 고양이와 해달, 음식에 관한 기발한 메시지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 아늑한 침대에서 벗어나야 했다는 농담이 담긴 깃발을 흔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다양한 깃발의 사진을 첨부했다.

소개된 깃발로는 ‘만두노총 군만두노조’, ‘방구석 피자토핑 연구회’, ‘전국 멀미인 연합’, ‘냉동실 발굴단’, ‘일정밀린 사람 연합’ 등이 있었다.

또 ‘뽕찐(화난) 고양이 집사 연맹’, ‘전국 탈모 병아리 협회’, ‘전국 해달은수달이아니아 협회’ 등 동물을 활용한 풍자의 사례들도 포함됐다.

사진 속 깃발 옆에는 그 의미를 풀이해주는 영문 설명도 하나하나 달았다.

NYT는 “깃발 속의 단체들은 실존하지 않는 곳으로, 노조나 교회·학교 등 실제 단체들을 패러디한 것”이라며 “이는 윤 대통령에 반대하는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 유머를 활용자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대통령 퇴진 요구와 같은 심각한 시위조차 매력적이고 낙관적이며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인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IMF, 우크라이나 내년 말 또는 내후년 중반 종전 예측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년 말 또는 내후년 중반쯤에 끝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측했다.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일간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IMF는 이날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에 대한 최신 전망을 내놓았다.

IMF는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의 2025년 말 종전을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이 경우 2024년 우크라이나의 국내총생산

(GDP)은 이전 예측보다 증가한 4%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IMF는 전력 생산에 대한 투자와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이 겨울철 에너지 부족의 영향을 완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IMF는 그러나 식량 가격 상승과 통화 가치 하락 등이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은 10%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크라이나는 2025년에는 에너지 공급역량 개선, 소득수준 향상, 물가압력 완화를 감안할 때 2.5-3.5%의 GDP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6년 중반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경제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IMF는 분석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